

# 전북도-중진공과 함께, 중국 내륙시장 개척

### 경진원, 중국 현지상담회 참여 수출계약·협약 11건 체결 성과... 현지 협력 상품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주효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공동 추진한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과 수출계약 4건 과 수출협약 7건이 성사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사천성 청두시와 충칭직할시에서 진행된 전라북도 수출 상담회에는 도내 소비자재기업 13개사가 참여하여, 흥삼제품

등 수출계약 및 협약 11건 (66만\$), 수출 상담 160여건, 총 920만\$ 상담이 이뤄졌다.

전북도 중국 서부지역 방문단의 수출성과는 지난해부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중진공 충청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전라북도 중국사무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중국 서부시장 개척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올해에는 특히,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 자문단의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현지 왕흥을 통한 상시적인 라이브 방송, 현지 유티커 바이어 대상 온라인 화상 상품설명회(5월), 충청서부 투자박람회 및 남부 우수상품전(5월)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

## 농진청, 농업연구개발 아이디어 모집

### 일반인·농업인 대상, 누리집서 휴대전화로 간단 참여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일반인과 농업인 등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기술 수요조사란을 지난 24일부터 상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분야는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그린바이오 융합 △기후변화·탄소중립 △식량주권 확보 △소독 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이다.

참여자는 연구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현장 지원 방안이나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아이디어 등도 자유롭게 제할 수 있다.

이번 기술 수요조사는 기존 범부처 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가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을 보완해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 첫 화면에서 '기술수요조사' 탭대 광고(배너)를 누르고 수요조사 창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접속 → 기술수요조사 탭대 광고(배너) 클릭 → 본인 인증(휴대전화) → 우측 상단 '신규작성' 클릭 → 정보 작성 및 양식 업로드 → 우측 하단 '저장' 클릭 순

이번 모집에서 접수된 기술 수요 가운데 연구과제 발굴 유형은 연구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규 과제 기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및 정책 수요는 해당 부서에서 주관해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김옥기 기자

## 전북대, 아프리카에 K-스마트팜 기술 보급 박차

### 국내 스마트팜 전문기업 '아그로테크'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 역량·기업 기술력 맞물려 스마트팜기술 수출 발판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아프리카에 K-스마트팜 기술 보급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지난 24일 국내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 활발한 기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주)아그로테크(대표 이성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의 첨단 시설학과인 스마트팜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의 관련 분야 교육·연구 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이 맞물려 한국형 스마트팜(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아그로테크는 스마트팜 운영에 특화된 기업으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대학과의 협력으로 스마트팜 관련 인재를 양성하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스마트팜 농장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대규모 커피 생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 생산



전북대는 지난 24일 국내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 활발한 기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주)아그로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해외 시장에 적극 수출하고, 미래 농생명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춘 아그로테크 대표는 "스마트팜 관련 교육과 연구에 있어 국내 최고 대학인 전북대와 스마트팜 기술의 해외 보급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에티오피아 현지에 건설한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에티오피아 3개 대학의 우수한 학생 30명을 선발해 전북대학교와 공동 교육과 실습을 실시한다면 지역 농가의 인력 확보는 물론 스마트팜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 LX,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과정 시동

### 공간정보아카데미, 서울디지털텍고 학생 대상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박신종)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밖 교육에 나선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디지털텍고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융합 서비스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영상 전처리 △기하 보정 △영상 특징 추출 등 공간정보 핵심기술 등 응용 가능한 공간정보 기술과 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춰 총 4학점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공간정보융합서비스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디지털텍고등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융합 서비스 과정을 운영했다. /김옥기 기자

## 남원농협,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6500만원 지원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25일 고죽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임원 조합원 조합원 자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자녀 65명에게 장학증서를 지급했다.

남원농협은 복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시절인 1987년부터 농민의 지위 향상 및 가계를 돕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2347명에게 12억3,7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대학생 65명에게 100만원씩 6,500만원



남원농협은 복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시절인 1987년부터 농민의 지위 향상 및 가계를 돕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2347명에게 12억3,7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대학생 65명에게 100만원씩 6,500만원

## 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연구센터' 정읍서 개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정읍에서 '전기재해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지현 사장과 처·실·원장 등 임직원 60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은 현관 제막식, 케이크 커팅식, 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전기재해연구센터는 명확한 전기재해의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2020년 착공한 이후 지난 7월 완공됐다. 화재연구동, 설비연구동, 감전연구동 3개 동 등 1,570㎡(476평) 규모로 조성됐다.

앞으로 화재 감식, 설비 사고 분석, 감전 사고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기재해의 사후관리와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전기화재 점유율이 높은 특별관리품목을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 연구와 현장 실증을 통해 전기재해 사전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동김제농협 봉남지점, 커피차 이벤트 제공

동김제농협이 지난 25일 봉남지점에서 조합원들과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NH농협은행이 제공한 커피차 이벤트를 실시했다.

동김제농협과 NH농협은행(총국장 김현미)이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동김제봉남농가주부모임(회장 최은자)에서 국수 등 음식을 제공하고 NH농협은행봉남지점에서는 커피차를 제공해 조합원들에게 시원한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고령화사회의 인기상품인 'NH네스트간병보험' 상담이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NH네스트간병보험'은 장기요양·간병 특화 상품으로 진단비, 간병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진 보험상품이다.

최진호 조합장은 "전례없는 호우피해와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조합원들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NH농협은행봉남지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동김제농협이 지난 25일 봉남지점에서 조합원들과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NH농협은행이 제공한 커피차 이벤트를 실시했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